



1899-0001

예약상담시간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2:30

www.emc.ac.kr

EMC 대전을지대학교병원

EMC 노원을지대학교병원

EMC 강남을지대학교병원

EMC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황달의 치료



광선치료가 주종을 이루는데 아기 옷을 모두 벗기고 눈을 가린 후에 특수 파장의 빛을 몸에 쬐이는 것입니다. 광선치료는 큰 부작용이 없고 효과도 탁월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만, 집에서 쓰는 형광등하고는 빛의 파장이 달라서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수치가 아주 높아져서 합병증이 우려될 때는 교환수혈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기의 혈액을 빌리루빈이 낮은 혈액으로 바꿔주는 치료방법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시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뇌성마비가 되거나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행합니다. 따라서 황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조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달의 치료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 ✓ 황달이 허벅지 있는 부위까지 진행된 경우
- ✓ 황달이 생후 10일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
- ✓ 황달이 보이면서 아기가 구토, 설사, 열, 보챔 등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 ✓ 머리에 말랑말랑한 덩어리(두혈종)가 만져지면서 황달이 보이는 경우
- ✓ 황달이 있으면서 아기의 변이 하얗게 나오는 경우
- ✓ 엄마 혈액형이 O형이면서 아빠가 A 혹은 B형이고 황달이 보이는 경우

황달이 무서운 이유

생리적 황달의 경우 대부분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간혹 수치가 너무 높으면 아기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 내 고도로 높아진 빌리루빈은 뇌를 통과하게 됩니다. 뇌를 통과한 빌리루빈은 뇌 안에 침착하게 되고 뇌 조직을 파괴하고 후유증으로 머리 내 청신경 경로를 망가뜨려 아기가 난청, 청각장애, 뇌성마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실
Newborn

신생아
황달



신생아 황달이란?

신생아는 출생 후 2~3일이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황달이 나타납니다. 황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황달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황달의 원인

신생아 황달의 원인은 '빌리루빈'이라는 물질

아기의 몸 안에서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깨져서 없어질 때 나오는 물질이 빌리루빈(bilirubin)입니다. 정상적으로 빌리루빈은 간으로 이동해서 간 효소에 의해서 처리된 후 장으로 배설되고 대변으로 나와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적혈구가 깨져거나, 간 기능이 미성숙하거나, 간에서 장으로 배출이 안 되거나, 대변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체내에 빌리루빈이 쌓여서 피부가 노랗게 보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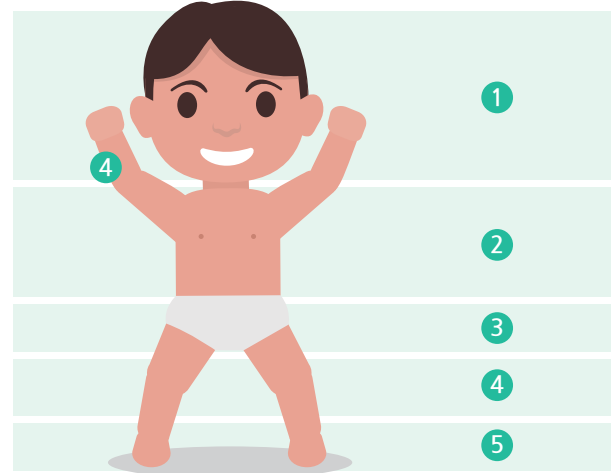
엄마가 황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황달은 수치가 높아질수록 머리에서 발끝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의 눈동자만 노랗다가 수치가 올라가며 얼굴, 목, 가슴, 배, 허벅지, 다리, 손바닥과 발바닥 순으로 노랗게 보이게 됩니다.

황달 여부는 옷을 벗기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피부를 살짝 눌렀다가 떼었을 때 누른 피부가 노랗게 보이면 황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눌러보고 제일 나중에 노래지는 발바닥을 눌러서 비교해 보면 황달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황달의 확인방법

신생아 황달의 범위와 종류



Zone	황달의 분포	혈청 (mg/dl)
1	얼굴과 목까지 와 있을 때	6(4-8)
2	동체의 배꼽까지 와 있을 때	9(5-12)
3	동체의 하부, 대퇴까지 와 있을 때	12(8-16)
4	팔, 다리, 발목, 팔목까지 와 있을 때	15(11-18)
5	손바닥, 발바닥까지 와 있을 때	15

황달의 종류

생리적 황달

출생 후 2~3일경에 아기의 눈동자와 얼굴이 노랗게 보이다가 생후 5~7일경에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생리적 황달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건강한 만삭아의 60%, 미숙아의 80%가 경험합니다. 아무런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정상소견입니다. 원인은 신생아의 적혈구는 성인 적혈구에 비해 연약해서 잘 깨지고, 간이 미성숙하여 빌리루빈의 처리 과정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병리적 황달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생리적 황달 이외의 모든 황달을 일컬으며 용혈성질환, 감염, 유전적 요소, 담도질환, 약물 등이 원인입니다. 병적 황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생후 24시간 이내 발생한 황달
- 생후 10일 이상 지속되는 황달
- 기저질환(구토, 기면, 수유 곤란, 체중 감소, 무호흡)을 동반하는 황달

황달의 종류

모유 황달

모유수유만 하는 신생아에서 생후 5~10일경에 나타나는 황달입니다. 모유의 양이 적은 것이 원인으로 모유 이외에 물이나 포도액으로 보충해서 칼로리가 적어진 경우나 설사, 구토 등의 탈수 요인이 있는 경우에 더욱 잘 생깁니다. 출생 후 되도록 빨리 모유 수유를 시작해 하루 10회 이상 수유해 아기가 탈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는 모유 수유를 끊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분유 수유로 보충해 주고 탈수의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유만 먹고 건강해 보이는 신생아가 생후 3주경에 황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유의 양은 충분하나 모유 내 어떤 성분이 황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1~2일간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유로 인한 황달에는 근본 원인과 치료가 다르므로 무조건 모유를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정상 신생아



황달 신생아